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 전남권 ‘통합의대’ 신설 드라이브

김영록 지사, 복지부 2차관 면담 의대 필요성 역설
도, 오늘 의대 설립 방식 ‘통합의대’로 정부에 추천
지역 의료체계 완결 등 공감대 이끌어낼 논리 집중

전남도가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대’ 신설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전남도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에 전격 합의하면서 의대 설립을 위한 첫 단추를 켜 만큼 전남권 의대 설립 방식으로 ‘통합의대’를 22일 정부에 공식 추천하고 전남도민의 30년 숙원 해소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1일 서울 여의도 컨시덴트호텔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목포대·순천대 통합 합의에 따라 22일까지 ‘통합의과대학’을 추천하면 2026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목포대·순천대가 지역 상생·화합과 미래 발전을 위해 ‘대학통합’과 ‘통합 의과대학’ 추진에 합의했다”며 “두 대학의 통합은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이 부응하고 지역과 대학을 살리는 전국 최초의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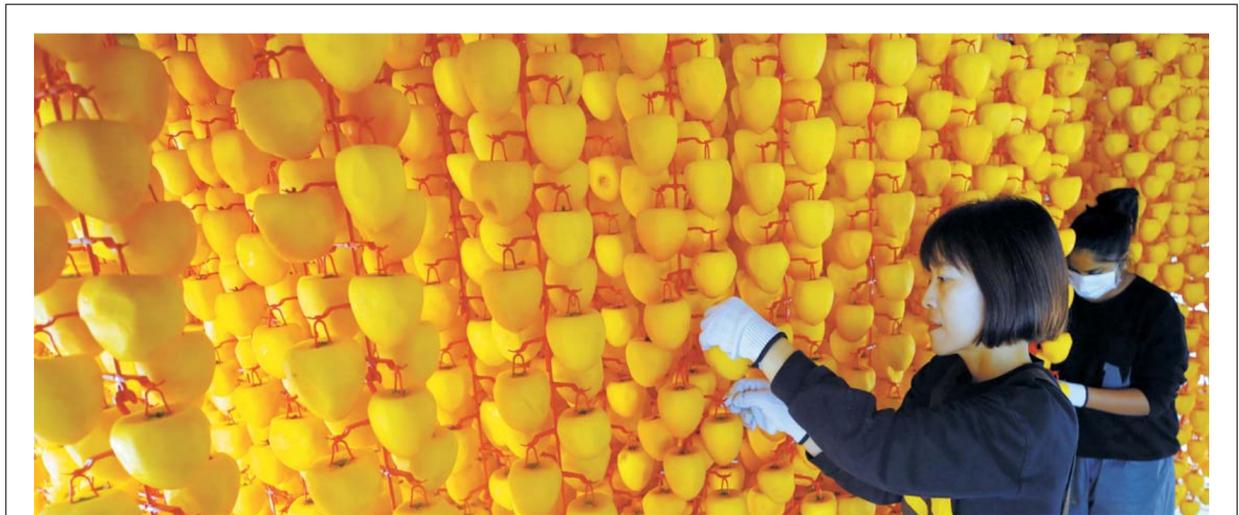
특히 그는 “통합 의과대학은 ‘지역 의과대학을 충분히 수렴해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을 충실히 이행한 방안이자, 국정 과제와 필수요건 강화 등 정부 정책을 실현하며 지역의 상생·통합정신에도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22일까지 ‘통합의과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것”이라며 “대학에서 통합의과대학명으로 신청하면 정부에서 2026학년도에 통합 의과대학이 개교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2차관은 “어려운 결정인 대학 통합이 성사된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라며 “행정적 지원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목포대와 순천대는 전남 실무협의 회를 갖고 통합의대 기본계획서를 작성해 ‘전남도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에 제출했다.

기본계획서에는 통합의대 설립 목표, 운영 방안, 동·서부 권역별 대학병원 운영 계획, 교원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



꽃감이 익어가는 계절.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을 하루 앞둔 21일 장성군 북하면 한 농장에서 주렁주렁 매달린 감 사이로 꽃감 말리기 작업이 한창이다. /김애리 기자

려졌다. 의대 정원도 거점 국립대의과대학 과비슷한 200명 안팎 규모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현재 용역사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전남권 의대 설립 대학 기본계획서를 다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전남지역에 의대가 신설돼야 할 당위성·필요성 등을 총망라한 지역 의료체계 완결 논리를 담아내

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22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기관에 공문으로 기본계획서를 발송, 통합의대를 의대 설립 대학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또한 실·국장급 간부가 직접 대면 전달하는 방안까지 조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합의대 조속 설립을 촉구

하는 각계의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이날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의대 설립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통합의대 설립은 전남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전남청

소년미래재단도 입장문을 통해 “양 대학이 협력을 통해 대학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뤄 통합의대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전남도민의 건강권·생명권을 지켜낼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 완성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김재정 기자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범정부협의체’ 재개될까

姜시장, 한덕수 총리 면담 ‘광주시 노력 만으로 역부족’
국가핵심시설 정부 역할 요청…총리 “도움될 방안 강구”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민·군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범정부협의체 재개를 요청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시절인 2021년 4월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해 구성된 국무조정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는 2021년 5월 이후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면담은 국무총리에게 지난 10월 20일 민·군공항 통합이전과 관련,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한 진서 전달에 이은 후속 조치로 성사됐다.

강 시장은 이날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해 이전의 큰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안 여부를 뛰어넘어 정부 지원을 담은 ‘광주군 공항특별법’이 제정됐다. 또한 전남과 함께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했고 무안군

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 광주의 진심을 전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이전부지 결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시장은 “이제는 광주시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무안군 지역사회의 민·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준다면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민·군공항은 국가의 핵심시설인 만큼 이전 당사자로서 정부도 함께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

군공항 통합이전 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표한다”며 “건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시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민·군공항 통합이전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중앙부처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 무안군민 여론 변화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수희 기자

Today

-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어떻게 5면
- 동인선생 역경강좌…육십사과 15면
- 슈퍼스타김도영, MVP 수상하나 16면

여수밤바다에 ‘소리·빛·감성’ 덧칠

국동항·장도·남산 야간 명소 조성

‘여수밤바다’가 소리와 빛을 더한 야간 명소로 탈바꿈한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여수밤바다를 중심으로 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에 착수했다. 여수시는 ‘리듬 오브 더 나이트, 여수 (Rhythm of the Night, YE OSU)’를 주제로 2027년까지 32억원을 투입, 주요 관광지를 새로운 야간 명소로 탈바꿈시켜 대한민국 대표 야간관광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동항 수변공원, 예술의섬장도, 남산공원 등 여수 주요 지역에 새롭게 야간경관 명소를 조성한다. 국동항 수변공원 일대는 감성적인 조명과 조형물을 설치하고 여수 특색을 살린 포토존을 마련한다. 장도는 진삼다리 주변에 조명을 더해 ‘선셋 테라스’를 조성한다. 남산공원은 여수밤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산책로와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여수의 밤을 다채롭게 물들일 매력적인 야간 콘텐츠도 마련된다. ‘캔들라이트 콘서트’는 여수밤바다를 배경으로 재즈·클래식 음악을 선보인다. /여수=김진선 기자

2024

GJFEZ
광주경제자유구역청
GWANGJU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국제 투자유치 포럼

혁신의 파동-AI, 모빌리티, 에너지로 여는 새로운 시대

11.29. Fri 09:00 - 12:30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

좌 장

블룸버그NEF
알리 이자디
아-태지역 리서치 총괄

지멘스코리아
정 하 중
대표이사

GE 버노바
다미앙 카잘리
KAPES CTO

한국엠티브CS
조 호 성
본부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신 용 녀
NTO

참 여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Microsoft

· APTIV ·

SIEMENS

AMD

오피모빌리티

GE VERNOVA

MotionsCloud

BORGWARNER

광주과학기술원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NHN CLOUD

KAP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Life is On

Schneider
ELECTRIC

사전접수 바로가기
www.gjfez.go.kr/

우리청 통합 SNS
바로가기